

박정훈 목사
 와일리한인감리교회 주일예배
 이사야 40:27-31
 2026년 6월 7일 오전 11시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의 새 힘

< 주역 도우소서 >

이사야는 크게 1 장부터 39 장까지와 40 장부터 66 장까지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마치 성경이 구약 39 권과 신약 27 권으로 나뉘듯이 이사야 66 장도 그렇게 나뉩니다. 그렇게 나누는 이유는 이사야 40 장부터 분위기가 확연히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이사야 1 장과 40 장을 비교해 보면 그 차이를 분명히 느낄 수 있습니다. 이사야 1 장에서는 유다의 죄악과 그에 대한 심판을 선포합니다.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사 1:2). 또한, "너희의 땅은 황폐하였고 너희의 성읍들은 불에 탔고 너희의 토지는 너희 목전에서 이방인에게 삼켜졌으며 이방인에게 파괴됨 같이 황폐하였고"(사 1:7)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동일한 하나님께서 이사야 40 장에서는 전혀 다른 음성으로 말씀하십니다. "너희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사 40:1). 이제 심판의 말씀이 아니라 위로와 희망의 말씀을 선포하십니다. "너희는 예루살렘의 마음에 닿도록 말하며 그것에게 외치라 그 노역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이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의 모든 죄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손에서 벌을 배나 받았느니라 할지니라 하시니라"(2 절).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죄에 대한 징계를 충분히 받았다고 선포하십니다. 그리고 장차 오실 메시아를 예언하십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이는 여호와의 입이 말씀하셨느니라"(5 절). 이 메시아는 단순한 선지자나 위대한 지도자가 아닙니다.

1. 위로의 복음과 메시아의 약속

하나님께서 친히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시는 분입니다. "보라 주 여호와께서 장차 강한 자로 임하실 것이요 친히 그의 팔로 다스리실 것이라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보응이 그의 앞에 있으며"(10 절). 메시아께서는 강한 자로 오실 것입니다. 이 예언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대로 성취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세상의 권력 앞에 굴복하지 않으셨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의 위선과 불의를 담대하게 책망하셨고, 성전을 장사꾼들의 손에서 깨끗하게 하셨으며, 십자가 앞에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셨습니다. 예수님의 강함은 세상의 힘과 폭력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진리와 거룩함,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절대적인 순종에서 나온 강함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강하신 메시아는 동시에 놀라울 만큼 온유하신 목자이기도 하셨습니다. 당시 사회에서 가장 연약한 존재로 여겨졌던 어린이와 여인들 앞에서는 한없이 온순하신 분이셨습니다. "그는 목자 같이 양 떼를 먹이시며 어린 양을 그 팔로 모아 품에 안으시며 젖먹이는 암컷들을 온순히 인도하시리로다"(11 절). 예수님께서서는 목자가 어린 양을 품에 안듯이 어린아이들을 품에 안으셨습니다. "그 어린 아이들을 안고 그들 위에 안수하시고 축복하시니라"(막 10:16). 오늘날에는 정치 지도자나 종교 지도자들이 어린아이를 안고 사진을 찍는 일이 흔합니다. 그러나 당시에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어린아이는 사회적으로 아무런 영향력이 없는 존재로 여겨졌습니다. 당시 유포가 아닌 사람이 어린아이를 품에 안고 시간을 보내는 일은 중요하지 않은 것으로 여겨졌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어린아이들을 예수님께 데려왔을 때 제자들은 부모들을 꾸짖었습니다. "우리 선생님이 얼마나 바쁘신 분인데 어린아이들에게까지 시간을 내시겠는가?"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제자들은 아이들이 예수님께 나아오는 길을 막았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책망하셨습니다. "예수께서 보시고 노하시어 이르시되 어린 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막 10:14). 권력자 앞에서는 진리를 위해

조금도 물러서지 않으셨지만, 언약한 자 앞에서는 한없이 자비로우셨습니다. 이것이 이사야가 예언한 메시아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사야가 예언한 유다와 예루살렘의 멸망, 바벨론 포로 생활, 포로 귀환, 그리고 메시아의 강림은 당시 사람들에게는 쉽게 받아들이기 어려운 예언이었습니다. 특별히 유다 왕국의 멸망에 대한 예언은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주신 약속과 정면으로 충돌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나단 선지자를 통하여 다윗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네 집과 네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전되고 네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삼하 7:16). 하나님께서는 다윗 왕조가 영원히 지속될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예루살렘이 멸망하고 유다 왕국이 사라진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처럼 보였습니다. 그런데 이사야는 분명하게 예루살렘의 멸망을 선포합니다. "예루살렘이 멸망하였고 유다가 엎드러졌음은 그들의 언어와 행위가 여호와를 거역하여 그의 영광의 눈을 범하였음이라"(사 3:8).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까?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다윗과 언약을 맺으시기 전에 이미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을 맺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출 19:5-6). 이 언약을 우리는 시내산 언약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그 핵심 내용이 바로 십계명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순종에는 복을, 불순종에는 징계와 저주를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나 출애굽 1 세대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습니니다. 십계명을 받자마자 금송아지를 만들었고 끊임없이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결국 그들은 젓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생을 마감했습니다.

이후 출애굽 2 세대는 요단강 동편 모압 평지에서 하나님과 언약을 다시 갱신합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호렘 산에서 우리와 언약을 세우셨나니, 이 언약은 여호와께서 우리 조상들과 세우신 것이 아니요 오늘 여기 살아 있는 우리 곧 우리와 세우신 것이라"(신 5:2-3). 그래서

출애굽기 20 장에 기록된 십계명이 신명기 5 장에서 다시 반복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갱신된 언약에서는 복과 저주가 매우 분명하게 선포됩니다. "내가 오늘 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두나니,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와 명령을 들으면 복이 될 것이요,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도에서 돌이켜 떠나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와 명령을 듣지 아니하고 본래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따르면 저주를 받으리라"(신 11:26-28). 하나님께서는 처음부터 순종에는 복을, 불순종에는 저주를 약속하셨습니다.

2.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이러한 시내산 언약은 이스라엘 공동체의 기본 언약이었습니다. 따라서 다윗 왕조라고 해서 예외일 수는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영원한 왕조를 약속하셨지만, 그 후손들이 언약을 저버리고 하나님께 반역할 경우에는 반드시 징계하셨습니다. 유다의 멸망은 하나님의 약속이 실패한 결과가 아니라, 언약을 깨뜨린 백성에 대한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이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영원한 왕조를 약속하셨다는 점입니다. "네 집과 네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전되고 네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삼하 7:16). 그렇다면 예루살렘이 멸망하고 다윗 왕조가 무너진다는 이사야의 예언은 당시 사람들에게 쉽게 받아들여질 수 없는 말씀이었습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의 심판보다 다윗 언약을 더 신뢰했습니다. 예루살렘에 하나님의 성전이 있고 다윗의 후손이 왕위에 앉아 있는 한 하나님께서 결코 이 나라를 버리지 않으실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이사야는 하나님께서 죄를 심판하실 것이라고 담대하게 선포했습니다. 그리고 히스기야 시대에 이르러서는 그 심판의 도구가 앗수르가 아니라 바벨론이 될 것이라고 더욱 구체적으로 예언했습니다. "보라 날이 이르리니 네 집에 있는 모든 소유와 네 조상들이 오늘까지 쌓아 둔 것이 모두 바벨론으로 옮긴 바 되고 남을 것이 없으리라 여호와와 말이니라. 또 네게서

태어날 자손 중에서 몇이 사로잡혀 바벨론 왕궁의 환관이 되리라 하셨나이다"(사 39:6-7). 이 예언은 당시 사람들에게는 도저히 믿기 어려운 말씀이었습니다. 당시 세계를 지배하던 나라는 앗수르였습니다. 바벨론은 아직 앗수르의 영향력 아래에 있었습니다. 나라도 없이 엘람에서 망명 정부로 버티는 바벨론이 훗날 강대국이 되어 유다를 멸망시킨다는 것은 상상하기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더욱이 포로로 잡혀간 백성들이 다시 고향으로 돌아온다는 것은 고대 근동의 역사에서 거의 전례를 찾아보기 힘든 일이었습니다. 한 번 멸망한 나라와 민족은 대부분 역사 속으로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역사와 전혀 다른 차원에서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이사야는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이렇게 선포합니다. "보라 그에게는 열방이 통의 한 방울 물과 같고 저울의 작은 티끌 같으며 섬들은 떠오르는 먼지 같으리니"(사 40:15). 당시 세계를 호령하던 앗수르도, 훗날 세계를 정복할 바벨론도 하나님 앞에서는 통에 떨어진 한 방울 물에 불과합니다. 저울 위에 얹은 작은 먼지에 불과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앗수르를 사용하여 징계하시고, 바벨론을 사용하여 심판하시며, 페르시아를 사용하여 포로들을 귀환시키십니다. 역사의 주인은 강대국이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이사야 40 장은 바로 그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우리를 초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손으로 빚어 만든 우상이 아닙니다. 그분은 하늘과 땅을 지으시고 만물을 존재하게 하신 창조주이십니다. 이사야는 백성의 시선을 땅에서 하늘로 돌리게 합니다. "너희는 눈을 높이 들어 누가 이 모든 것을 창조하였나 보라 주께서는 수효대로 만상을 이끌어 내시고 그들의 모든 이름을 부르시나니 그의 권세가 크고 그의 능력이 강하므로 하나도 빠짐이 없느니라"(26 절). 밤하늘의 별들은 인간의 눈에는 셀 수 없이 많아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별의 수를 아시며 하나하나 이름을 부르십니다. 광대한 우주를 다스리시는 하나님께는 우연도 없고 혼란도 없습니다. 별 하나도 그분의 통치를 벗어나지 못한다면, 하나님의 백성 또한 결코 그분의 손길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3.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의 새 힘

이사야는 낙심과 절망 가운데 있는 백성에게 다시 묻습니다.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 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28-29 절). 인간은 쉽게 지칩니다. 육체도 지치고 마음도 지칩니다. 믿음도 흔들리고 소망도 약해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피곤하지 않으십니다. 세상을 다스리시는 데에도 지치지 않으시고, 한 사람의 눈물을 돌보시는 데에도 곤비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지친 자에게 능력을 주시고,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하는 자에게 새로운 힘을 공급하십니다.

그래서 이사야는 믿음의 사람들에게 위대한 약속을 선포합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달음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31 절). 여기에서 앙망(仰望)이라는 말은 한자 그대로 풀이하면 仰(앙)은 ‘우러를 앙’, 望(망)은 ‘바랄 망’으로, ‘우러러 바라다’라는 뜻입니다. 예를 들어 탄원서를 쓸 때 ‘선처를 바랍니다’라고 할 수도 있지만, ‘선처를 앙망합니다’라고 하면 상대를 높이고 자신을 낮추는 겸손의 뜻이 담깁니다. 마찬가지로 이사야가 단순히 ‘여호와를 바라는 자’라고 하지 않고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라고 표현한 것은 단순히 무엇을 얻기 위해 하나님을 찾는 차원을 넘어서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유일한 소망으로 삼고, 자신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며, 겸손히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것을 말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앙망하는 사람은 자신의 능력과 경험에 의지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새 힘으로 살아갑니다. 그래서 삶의 무거운 짐과 어려움 속에서도 낙심하지 않고,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가듯 다시 일어서며, 달음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않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않는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어려움을 이겨 낼 뿐 아니라 더 높이 비상합니다. 개역개정은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라고 번역하지만, 히브리어

본문에는 '치다'에 해당하는 동사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날개라는 명사인 אָבֵר(eber)만 사용되었습니다. אָבֵר(eber)가 날개를 펼치다라는 뜻도 있음을 감안하면, 31 절의 의미는 "그들은 독수리들처럼 날개를 펼치고 올라갈 것이다"에 가깝습니다. 즉, 원문은 "열심히 날갯짓한다"보다 날개를 활짝 펴고 상승한다는 그림을 보여 줍니다.

독수리는 작은 새들처럼 끊임없이 날갯짓하며 날지 않습니다. 상승 기류를 만나면 넓은 날개를 펼친 채 그 바람을 타고 하늘 높이 올라갑니다. 심지어 폭풍이 불어올 때에도 그것을 피하기보다 오히려 그 바람을 이용하여 더 높은 곳으로 비상합니다. 신앙도 이와 같습니다. 하나님을 앙망하는 사람은 자신의 힘으로 인생을 버텨 내는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은혜의 바람을 타고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세상이 보기에 시련이고 고난이며 폭풍처럼 보이는 일들이 오히려 그를 하나님께 더 가까이 이끌고 더 높은 믿음의 자리로 올려 보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오늘 여러분의 마음속에서도 다음과 같은 탄식이 흘러나오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송사는 내 하나님에게서 벗어난다”(27 절). 때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나를 잊으신 것 같고, 내 기도는 하늘에 닿지 않는 것 같으며, 내 억울함과 눈물을 하나님께서 돌아보지 않으시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사야는 우리에게 하나님을 앙망하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반드시 새 힘을 얻는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독수리가 바람을 타고 높이 비상하듯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 다시 일어섭니다. 달음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않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않습니다. 부디 우리 모두가 여호와를 앙망함으로 날마다 새 힘을 얻고, 하나님의 은혜의 바람을 타고 믿음의 높은 곳으로 비상하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 Soli Deo Gloria >